

세움펠리피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평당 분양가 730만원... 건설 전문가 "토지비 등 계산 분양가 책정 결과 630~650만원 선 적정" 주장

세움건설이 전주시 반월동에 세움펠리피아(2차) 아파트 500세대를 분양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3㎡당 평균 분양가가 730만원대로 책정돼 토지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사가 지역민들에게 지나 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움건설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일원에 세움펠리피아 2차를 분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고객몰이에 한창이다.

전용면적 59㎡ 평당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764만9,000원, 64

㎡는 778만8,000원, 84㎡는 776만1,000원이다.

세움건설은 만성지구와 영무 에다움, 에코시티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는 친환경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단지 내 호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유명 브랜드를 갖췄고 만성지구와 영무 에다움의 교통과 지리적 조건이 세움펠리피아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분양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움건설은 아파트 시공능력 3등급 업체로 브랜드조차 생소한 데다 아파트 진출이 불편하고 고가다리 옆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당부지의 국토부 토지실거래 가격이 평당 3.3㎡당 150만 원 선인 것과 용적률이 2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주택건설업체 전문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비 등을 계산해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630~65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분양가라고 입을 모았다. 세움건설이 반월동에 분양한 세움펠리피아 1차의 경우 590만원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토지가격도 싼데다 입지조건 등이 떨어진 2차가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전주시 반월동 한 공인중개사는 "수십년간을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토지비+건축비 등을 최대한 올려 계산해도 현재의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세움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 업체가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당초 780만원으로 책정됐고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대로 분양해도 상관없지만 지역 정서를 고려해 특별로 구분해 분양가를 오히려 낮춰 분양했는데 비싸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인재용 기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식

대전시 중구 태평지역아동센터서

전북은행 중부지역금융센터는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태평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7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진영찬 부행장, 이태수 중부지역금융센터장, 송덕수 은행동지점장,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강현미 상임부회장 및 이영수 운영위원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진수 팀장 등이 참석했다.

태평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개소해 대전시 중구 일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공부하고 벽과 유리창문의 보수를 요

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도배, 책상, 의자, 벽보수 등을 새롭게 지원해 아동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했으며, 은행동지점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의 희망멘토가 돼 주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진영찬부행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아동청소년 지역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 효과 '톡톡'

다양한 먹거리 체험·상인회 등과 소통채널 구축

전북중기청은 평소 전통시장 이용 생활화 적극 실천에 대한 확산 분위기를 위해 청 직원들이 숭선수법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 프로젝트를 운영 효과가 특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한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은 전직원을 자체 4개조로 편성해 점심시간에 조별 로테이션으로 매주 1회씩 전주권 전통시장 및 전주권 외 특성화시장을 방문해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 체험 및 상인회 등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

는 한편 이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방중기청은 이미 지난해에도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을 총 42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전통시장 방문이 실생활화될 수 있도록 형식적·전시적인 면은 지양하고, 평일 근무 여건임에도 내실을 갖춰 현재까지 12회를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노력이 모범사례로 부각되면서 전 지방중기청에 수평 전개로 확산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방문

시장 및 동반 참여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내 70여 기관·단체에도 전북중기청 운영계획을 송부·참고하도록 해 기관별 자체 운영을 독려했다.

이와 같은 전북중기청의 독려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직원들의 숭선수법 노력과 연계한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를 위해 SNS에도 전통시장 방문 맛집 소개 등 수시 현장 인증샷 등을 게재하는 온라인 홍보도 집중 병행하고 있다.

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 청장은 "전북중기청에서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생활화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이 전북청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도내 유관기관·단체에도 참여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방문과 활성화에 일조하는 물론 상인들의 호응도 좋은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연말까지 지속적 운영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은 노력의 활동이지만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자체 등 도내 주요기관들도 명절에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아닌 관심을 갖고 평상시 생활화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인재용 기자

5월 전북지역 주식거래량↓대금↑

5월 전북지역의 주식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거래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5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은 2억900만주로 지난 4월보다 17.82%(4,533만주)가량 감소했다.

반면, 거래대금(1조2,978억원)은 1.19%(15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

서 차지한 비중을 보면 거래량(0.97%)은 전월보다 0.07% 정도 감소했으며, 거래대금(0.66%)도 0.06% 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증권, 미래산업, 영진약품, 아남전자, KGP, 페이퍼코리아, 신원 등 순이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이화전기, 에스마크, 스틸플러위, 이에스브이, 행남생활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용 기자

모항해나루가족호텔·부안소방서, 합동 소방 훈련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은 7일 부안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진·화재 대비 소방방재훈련 및 전 직원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소방안전훈련 위주로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고객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지진·화재에 따른 비상 상황을 설정, 직원

들의 초동대응, 숙박객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상황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부안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은 재난발생시 호텔과 소방서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호텔과 부안소방서는 현장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확대키로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행복한 중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전북신보는 기업등급 요건을 종래 'BB등급 이상'에서 'B등급 이상' 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업체당 보증금액을 높이기 위해 기업등급 위험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등 지원하고, 기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보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 보증금액을 포함한 추가 신청금액이 진흥원의 자금지원 결정서의 승인금액 이내이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자금지원 결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이면 이미 특례보증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진흥원 자금승인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추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시행 후 지금까지 127개 업체에 102억원을 접수해 접수액 기준 소진율 56.7%(지원규모 180억

원 기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 결정으로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지원이 도내 중소기업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도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복한 중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자금의 지원대상은 업력 1년 이상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인 제조업 전입률 30%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2억2000만원까지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0.46%(보증요율 연 0.8% 별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지원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결산재무제표(3개년도)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또는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